즉시 배포용: 2017 년 1 월 29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난민 보호와 실종 또는 억류가 의심되는 개인에 대한 신고를 위한 새로운 핫라인 발표

새로운 핫라인은 뉴욕 공항에 묶여 있는 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

입국 항공편에 탄 가족이 연락이 안 되거나 억류가 의심되면 ***1-888-769-7243***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민에게 무료 기밀유지 핫라인 신설을 발표하여 가족, 친척, 친구 혹은 직장동료가 뉴욕행 입국 항공편에 탔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억류되었다고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핫라인은 뉴욕시민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알리는 주정부의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밑에서 사는 뉴욕시민으로서 우리는 에너지 원천으로 되는 새로운 이민자들을 환영하며 주의 활력소로 될 그들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뉴욕이 희망과 기회의 모법이 되고 우리 주에서 피난처를 찾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친인척 가운데 최근의 연방 법안 때문에 억류, 실종 혹은 여행 중에 발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있는 뉴욕 시민은 주무부의 무료 핫라인 1-888-769-7243 번에 전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핫라인은 주 7 일, 24 시간 운영하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핫라인의 신설은 어제 전국의 공항 입국장에서 발생한 난민 억류 상황에 대한 주지사의 조치입니다. 주지사는 항만 관리청(Port Authority), 주무부 및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뉴욕 공항에 억류된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법적 경로를 찾을 것을 지시하여 난민들의 권리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최근에 뉴욕주 경찰청(New York State Police)과 뉴욕주 인권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담당자들이 참여한 뉴욕주 증오범죄 전담반(New

York State Hate Crime Task Force)을 꾸려 증오 범죄를 조사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 전담반은 지역구 변호사들을 조직하여 증오범죄 사건 기소 중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부 수사관들은 이미 주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나치 문양 등 최근에 보고된 증오범죄 사건의 수사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주지사는 이달 초에 모든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관용하도록 돕고, 열린 마음과 포용성을 증진하며, 모든 뉴욕 주민의 보호를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Dolan 추기경이 이끄는 새로운 범종교 자문위원회(Interfaith Advisory Council)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